



Bulletin

해외 도서관 탐방기

일본의 도서관에서 사람들을 만나다
황재영 | 국방과학연구소

일본의 도서관에서 사람들을 만나다

- 황재영의 2박 3일 일본도서관 방문기 -

황재영_국방과학연구소

1. 들어가며

한국전문도서관협의회(Korea Special Library Associations, 이하 KSLA라 함)에서는 회원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1명씩 해외교육훈련 대상자를 선발한다. 이런 계기로 나는 2010년 6월 우리에게 가깝고도 멀다는 일본을 2박 3일 일정으로 다녀왔다. 사실 이번 여행의 목표는 도서관이 아니라 도서관에서 일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다. 도서관의 일반적인 현황과 시설은 굳이 일본을 가지 않더라도 도서관 웹 사이트를 통해 알 수 있다. 그러나 사람을 만나는 일은 다르다. 그래서 방문 예정 도서관의 기본적인 현황 정보를 웹 사이트를 통해 미리 숙지하고 도서관인(사서)을 만나기 위해 일본으로 향했다.

일정이 짧아 많은 곳을 볼 수는 없었으므로 국립도서관, 전문도서관, 대학도서관 1곳을 지정하여 방문하였다. 그리고 우리 협의회와 동일한 성격의 일본전문도서관협의회(Japan Special Library Association, 이하 JSLS라 함) 임원단을 만나는 시간도 가졌다. 짧은 일정이지만 긴 여운을 남긴 이번 방문을 간단히 정리해 보고자 한다.

2. 일본도서관 방문을 준비하며

2008년 KSLA 이사회에서 해외교육훈련 대상자로 선발되었을 때, 해외 도서관을 둘러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어 기뻐지만 다른 한편으로 어디를 가야할지가 고민으로 다가왔다. 이전에 해외교육훈련을 다녀온 분들을 보면 도서관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이나 유럽을 주로 다녀왔다. 그러나 “등잔 밑이 어둡다고 했던가?” 정작 우리에게 지리적으로 가까운 일본을 다녀온 사례는 많지 않은 것 같았다. 일본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와 도서관 사정이 비슷한 이웃 나라 도서관에서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고 우리 도서관의 미래를 발견하고자 함이었다.

막상 방문국을 일본으로 정했지만 어느 도서관을 방문하고, 누구를 만나고, 그들과 어떤 이야기를 나눌 것이며, 무엇을 볼 것인가가 막막했다. 그래서 일본 도서관에 관한 신문기사, 일본의 주요 도서관 웹사이트, 우리나라 도서관 사서들의 여행기 등등 막연한 웹 서핑으로 일본 도서관 방문의 첫 발을 내딛게 되었다. 너무도 막연한 일이다. 그러나 하나씩 하나씩 일본 도서관에 관한 정보를 접하면서 내가 방문해야 할 도서관을 구체화했다.

여행준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었다. 첫째, 방문 예정 도서관을 정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일, 둘째, 도서관 방문 시 통역을 맡거나 안내를 해 줄 사람을 구하는 일, 셋째, 비행기, 숙박 등 여행에 관한 정보를 알아보는 일 등이다. 어느 것 하나 쉬운 일은 없었다. 내가 방문 예정 시기와 도서관을 정했다 해도 통역할 분의 일정이 맞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니 이것저것 모두 맞추기란 정말 쉽지 않았다.

3. 방문 첫째 날

● 국립국회도서관

2010년 6월 9일(수요일) 이른 새벽 대전에서 공항 리무진을 타고 인천공항으로 출발하였다. 일본 나리타공항행 비행기를 탄지 채 1시간도 지나지 않아 일본 영해에 들어서게 되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났다. 비행기에서 내려다 본 산과 바다는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별 차이가 없었지만 언어와 사회제도가 전혀 다른 나라에 들어섰다는 것이 실감이 나지 않았다. 나리타공항에 도착할 무렵에는 부슬 부슬 비가 내려 잠시 감상에 젖기도 했다.

나리타공항에서 JR나리타 Express를 타고 1시간 남짓하여 동경역에 도착했다. 맨 처음 방문한 곳은 일본 국립국회도서관이었다. 미리 방문 예약을 한 상태라 입구에서 간단한 등록 절차만 거치고 바로 안내를 받았다. 우리를 안내한 분은 국제협력실 소속의 시라이상이었다. 한국에 있는 모 대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웠다고 하는데 제법 한국어 실력이 있어 보였

다. 시라이 상은 우리를 세미나실로 안내했으며 비디오로 국회도서관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소개해 주었다. 한국어로 된 안내 비디오라서 쉽게 국회도서관의 전반적인 현황과 정보서비스를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나서 도서관 시설물과 건물 곳곳을 둘러 볼 수 있었다.

내가 본 일본 국립국회도서관은 우리나라 국회도서관이나 국립중앙도서관과 거의 유사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건물뿐만 아니라 임무와 기능, 역할도 비슷해서 매우 익숙한 느낌이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우리나라는 작년에 국립디지털도서관(National Digital Library)을 건립했기 때문에 디지털도서관에 한 발 앞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일본도 디지털도서관 사업을 전혀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분관으로 있는 국립국회도서관 간사이관(關西館)이 전자도서관 사업을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NDL과는 다소 다른 모습인 것 같았다.

설명을 들으면서 특이했던 점은 행정·사법 각 부문의 지부 도서관 26관 모두가 국회도서관 소속으로 되어 있다는 점과 일본 국회도서관의 영문표기가 National Diet Library라는 것이었다. 우리나라와 미국은 National Assembly로 표기하는데 반해 일본은 Diet로 표기하는데 이는 일본이 유럽 문물에 영향을 많이 받은 결과로 보인다.



〈사진 1.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담당자와 함께〉

● 국제어린이도서관

국립국회도서관을 나와 국제어린이도서관으로 가는 길에 말로만 들던 황궁을 지나가게 되었다. 외국 관광객 일부가 사진을 찍고, 일본 어린이들이 견학을 왔는지 줄지어 걸어가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황궁은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었는데 국왕이 아닌 영주를 중심으로 일본을 다스리던 중세의 모습이 아직까지 고스란히 남아 있는 것 같았다.

우에노공원을 지나 국제어린이도서관에 도착했다. 1층에는 어린이 방, 세계를 알 수 있는 방, 이야기 방, 카페 테리아 등이 있었다. 2층에는 일본과 아시아 각국에서 간행된 아동서나 관련자료, 최신판 교과서를 이용할 수 있는 제1자료실, 아시아를 제외한 해외에서 간행된 아동서를 이용할 수 있는 제2자료실이 있었다. 3층에는 책 박물관, 미디어와 만남 코너, 홀 등이 있었다. 내가 일본 사서에게 “이 도서관의 주 이용자가 어린이입니까 아니면 연구자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연구자도 많다고 했던 것 같다. 처음에는 이상한 눈초리로 보았으나 한국 사서임을 밝히자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것을 보여주려고 했던 친절이 기억에 남는다.

4. 방문 둘째 날

● 筑波大學校도서관

일본에서 이틀째 되는 날 아침 일찍 동경에서 1시간가량 떨어진 츠쿠바시로 향했다. 현지 유학생 말을 빌리면 츠쿠바시는 대전의 대덕연구단지과 비슷한 점이 많은 도시라고 했다. 깨끗한 도시 환경, 잘 정돈된 건물들, 과학 기술분야 연구단지, 그리고 고학력의 주민들까지. 그래서인지 도시가 생소하지 않고 마치 내가 살고 있는 유성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츠쿠바시에 도착하자 마차 찾아간 곳은 츠쿠바 대학교 중앙도서관이다. 츠쿠바대학은 도서관정보대학교로 유명하다고 들었기 때문에 가기 전부터 기대가 매우 높았다. 나를 안내한 유학생이 미리 방문 예약을 한 상태라서 도착시간에 맞춰 직원이 마중을 나왔다. 아마도 홍보를

전담하는 사서 선생님 같았다. 홍보 담당 사서는 직원 사무실을 지나 세미나실로 나를 안내했다. 잠시 후 분야별로 담당 사서가 세미나실로 찾아와서 츠쿠바 대학 도서관을 전반적으로 소개해 주었다.

첫 번째 직원은 정보서비스과 직원이었다. 열람, 대출, 레퍼런스, 문헌복사, 도서관상호대차, 이용자 교육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우리의 대학도서관과 사정이 별반 다르지 않음을 느꼈으며 고민하는 부분도 비슷했다. 두 번째 직원은 전자도서관 시스템에 대해 설명하였고, 마지막으로 홍보 담당 직원이 설명해 주었다. 사실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바로 홍보 담당직원의 설명이었다.

우리나라 도서관은 도서관 마케팅과 홍보가 거의 볼모지나 다름없다. 일본 대학도서관의 경우 홍보 담당직원이 별도로 있고 활발한 마케팅 홍보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츠쿠바 대학의 경우 각종 팜플렛, 리플렛 등을 발행하는 것은 물론이고 대학도서관의 마스코트도 있었다. Tulib-san(여자 마스코트), Gamajumper(두꺼비 마스코트)는 여러 가지 도서관 홍보물에 활용되고 있고 직원 간의 커뮤니케이션에도 좋은 역할을 한다고 했다. (아래 그림 참조)

홍보에 관한 이야기가 더욱 무르익어 갈 무렵 츠쿠바 대학 도서관에서 국제상을 수상한 도서관 홍보 영화 이야기가 나왔다. “週5圖書館生活, どうですか?” 제목의 도서관 홍보 영화였는데 도서관 관리자가 아닌 이용자 입장에서 도서관을 쉽게 설명한 영화라서 정말 특이했다. 영화 시나리오의 대충 이렇다. 한 명의 이용자가 우연한 기회로 도서관을 방문하면서 도서관의 유용성을 경험하고, 5일 동안 다양한 도서관 서비스를 체험한다는 내용인데 학생의 생활 속에 도서관이 어떤 도움을 주는지를 잘 설명해 주는 것 같았다.



마스코트: Gamajumper 마스코트: Tulib-san 주5도서관생활

〈그림 1〉 츠쿠바 대학 도서관의 마스코트 및 홍보 활동

1) 주 5일 도서관에서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http://www.tulips.tsukuba.ac.jp/pub/w5lib/video_all_korea.html

◎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도서관

츠크바 대학 도서관을 뒤로 하고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 도서관서비스센터를 방문했다. 우리나라 대덕연구단지에 있는 정부출연 연구기관 도서관과 규모가 거의 비슷했다. 사서가 3명이고 그 중 한 명의 사서가 우리를 안내했다. 소장하고 있는 장서의 종류, 규모, 형태 등이 거의 우리나라의 상황과 너무 비슷해서 놀랐다. JAXA 도서관은 JAXA 본사도서관(JAXA), 츠크바 도서관(JAXA/TKSC), 우주과학연구소도서관(ISAS/JAXA)등 서로 다른 지역에 3개의 도서관이 있다고 한다. 안내 사서의 말에 의하면 현재 내가 방문한 도서관을 비롯해 2개의 도서관은 위탁운영 도서관이라고 했다. 일본 사회에서 도서관의 위치가 낮아지고 사서의 전문성과 지위가 위축되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까웠다. 이런 현상이 우리에게도 곧 닥쳐오는 것은 아닐까? 하는 염려 속에 JAXA 도서관 문을 나섰다.

◎ 筑波大學校 圖書館情報學도서관

둘째 날 마지막으로 방문한 곳은 츠크바 대학교 도서관의 부속도서관인 도서관정보학도서관이다. 우리식으로 보면 단과대학교 도서관인데 문헌정보학분야의 전문 도서관이라 나에게도 또 다른 의미가 있었다. 상세한 도서관 현황을 알아보지는 못했지만 일본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문헌정보학관련 주요도서와 학술지가 비치되어 있는 것 같았다. 현재 도서관정보 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을 보면 학부생 약 500여명, 대학원생 약 500여명이니 그 규모를 실감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우리를 안내한 사서 선생님은 나이가 좀 든 여성분이었는데 도서관정보학 박사학위도 가지고 있는 분이었고 매우 친절했던 기억이 난다. 도서관을 잠시 둘러보고 우리를 안내할 곳이 있다고 해서 따라간 곳은 도서관 미디어박물관 상설전시장이었다. 자료를 저장하는 매체의 발달 과정을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전시하고 있었는데 초기 감골문자, 파피루스에서부터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이르기까지 모든 저장 매체를 소장하고 있었다. 또 한 가지 눈에 들어 온 것은 로봇이었다. 아직 시운전 중이지만 도서관의 무인 안내를 담당할 것이라고 했다.



〈사진 2. 圖書館情報學도서관 직원과 함께〉

5. 방문 셋째 날

◎ 일본전문도서관협의회(JSLA)

택시를 타고 우에노 역에 도착하고, 다시 지하철로 갈아타고 동경상공회의소 건물로 갔다. 10분 먼저 도착하니 안심이 되었다. 동경상공회의소의 미팅룸에서 JSLA 중앙사무국장님과 상임위원을 만났다. 나보다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라 조금 더 긴장을 할 수 밖에 없었다. 통역을 맡아주신 오쿠라 사장님의 유창한 통역 실력과 사업가다운 재치로 자칫 무거워질 수도 있는 분위기가 편안한 분위기로 미팅이 이루어졌다.

먼저 양국 협의회를 소개했다. JSLA 측에서는 미리 준비한 JSLA 소개 팸플릿으로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다. 우리와 비교해서 여러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었지만 기억에 남는 것은 규모였다. 우리보다 5배 이상 되는 500여 회원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회원기관은 국립국회도서관을 비롯하여 관청도서관 20%, 대학도서관 12%, 기업부설 자료실 41%, 기타 단체 도서관 27%로 구성되어 있다. 회원의 종류도 정회원, 개인회원, 참조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우리 KSLA와 거의 유사했다.



JSLA의 주요사업으로는 연수사업, 출판사업, 국제교류사업 등이 있는데 그중에서 국제교류사업은 우리보다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미국 SLA와 Joint Meeting을 개최할 만큼 활발한 국제 교류를 하고 있었다. 2011년 2월에 미국과 Joint Meeting을 할 예정인데 우리 KSLA도 참가해 보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받았다.

이번 JSLA와의 미팅을 통해 양국 협의회간의 교류와 협력을 다짐하는 초석을 다지게 되었다. 그 첫 번째 일로 JSLA와 KSLA에서 발행한 간행물을 서로 주로 받기로 하였고 이것이 점차 발전하여 인적 교류, 학술 교류도 해 보자고 약속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JSLA에서 발간한 『専門情報機關總攬 2009』과 Bulletin 자료『専門圖書館』을 선물로 받았다.

6. 나오며

일본 도서관 방문을 제외하고 내 기억 속에 남는 일본의 모습을 그려보면, 복잡했던 동경의 지하철, 고즈넉한 우에노(上野) 공원, 라면과 초밥, 우동으로 대표되는 일본의 음식들, 깨끗했던 동경도시 중심가, 내가 묵었던 사도니스 호텔, 그리고 그 주변의 왓자지껄한 시장, 지하철 내 한국어 안내 간판, 아사쿠사(淺草), 비싼 물가 등등...

내가 일본 문화에서 느낀 점은 절차와 기본을 중요시 하고 조직원 개개인의 책임 한계가 분명한 나라라는 것이다. 이 같은 사회 분위기는 도서관도 예외가 아닌듯 싶다. Web 2.0과 Library 2.0과 같은 IT기술이 접목된 디지털도서관 모습은 우리보다 다소 늦어 보였지만 OPAC 하나하나를 심혈을 기울여 구축하고, 철저한 계획안에서 디지털화를 추진한다는 점은 우리가 보고 배워야 할 점이 아닌가 싶다.

향후 이 글을 읽는 분들이 일본의 도서관을 이해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